

기독교대학생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노인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 영적 안녕감과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전 요 섭**

논문초록

이 연구는 기독교대학생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노인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적 안녕감과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갖는다.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4개 대학에 재학중에 있는 학생과 10개 교회에 출석하는 대학생 총 43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분석은 SPSS 19 통계 프로그램과 AMOS 7.0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노인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기독교대학생의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노인 부양의식 간의 관계에서 영적 안녕감과 불안은 매개효과를 갖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부양의식에는 가정적 자아존중감, 영적 안녕감, 불안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적 안녕감($r=.348, p<.001$)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불안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노인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안녕감과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영적 안녕감(.386, $p<.001$)과 불안(-.146, $p<.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노인 부양의식에 직접적 영향(8.082, $p<.001$)과 간접적 영향(1.218, $p<.001$)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노인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안녕감과 불안이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노인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안녕감과 불안이 매개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충분히 갖도록 부모의 적절한 양육과 돌봄

* 이 논문은 2011년도 성결대학교 “특별연구지원사업과제”로 성결대학교의 연구비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성결대학교 교수

2012년 8월 3일 접수, 9월 3일 최종수정, 9월 24일 게재확정

을 준다면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고, 자녀를 신앙 안에서 절대자와의 수직적 관계와 자신, 이웃, 환경과의 수평적 관계의 조화를 이루도록 양육하는 것이 노인 부양의식을 높이는 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노인 부양의식 간 관계에서 영적 안녕감과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기독교대학생의 노인공경 및 효도에 대한 개인상담, 가족상담에 대한 근거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기독교대학생, 가정적 자아존중감, 노인 부양의식, 경로, 효, 영적 안녕감

I. 여는 글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경로’(敬老) ‘효’(孝) 의식이 투철하여 이를 인간의 마땅한 윤리, 도덕, 도리로 여겨왔다. 하지만 근래 가정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젊은이들의 인식에 ‘경로효친’(敬老孝親)은 비현실적인 사회윤리로 인식되고 있다. 자녀가 노부모에게 심리적, 경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인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녀들이 증가함으로써 아울러 삶의 질이 떨어지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김숙경(2010: 439-51)도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확대가족에서 당연시 되어오던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가족이 지닌 노인보호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2009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자녀수가 1.19명으로 장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말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2012. 3. 15) 국내 청년 취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하위이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가설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문제는 전면적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율 7%를 넘어서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4%에 이르러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과학의 발달, 전반적으로 노인의 건강 및 영양상태 양호와 평균 수명의 연장, 출산률 저하 등은 인구의 역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었고, 상대적으로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사회의 노인시설 확충, 연금확보, 노인보호기능, 노인우대 정책 수립 등 사회적 비용을 젊은이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노인부양은 커다란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기독교신앙은 효를 바탕으로 인간된 도리를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세대 간 갈등 상황에서 이 요구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신앙교육 및 상담의 지표로 제시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상담학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성공에 몰두하고,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201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1순위는 직장문제(22.6%)였고, 그 다음은 외로움(21.8%), 경제적 어려움(18.5%)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20). 이같은 상황에서 과연 기독교대학생들은 사회윤리로서의 ‘경로’ ‘효’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책무 수행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인식의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이란 가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한 자술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출생을 가치있게 여기고, 자신이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존재라는 자의식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에 따라서 자녀는 자신을 양육시켜주고, 가치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신 부모의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깨닫고, 부모가 노쇠하여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되었을 때 부모를 잘 섬기고 보은, 공양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높게 인식하게 된다.

‘노인 부양의식’은 일반적으로 ‘경로’ ‘효’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인을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의식의 정도를 말한다. 노인 부양의식이 높을 경우는 사회적, 윤리적,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대적 의미에서 부양의식은 노부모 및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배려하는 것이다.

‘영적 안녕감’(spiritual well being)은 인간의 영적 본성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능력이며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이른바 ‘신앙의 정

도'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절대자와의 수직적 관계와 자신, 이웃, 환경과의 수평적 관계의 조화와 내적 자원이 총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Soeken & Carson, 1987: 603-11).

영적 안녕감에는 두 가지 하위변인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 영적 안녕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존적 영적 안녕감이다. 종교적 영적 안녕감은 인간이 '초월자' '절대자' '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안녕감을 의미한다. 즉 신에 대한 이미지와 느낌, 신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신 혹은 절대자를 비롯하여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신과의 관계 속에서 질병, 고통과 같은 현실의 문제와 삶의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지의 정도도 종교적 영적 안녕감에 포함된다. 또 실존적 영적 안녕감은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안녕감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장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살아가는 목적과 삶에 대한 의미부여의 정도 등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영적 안녕감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 차원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이것이 높은 사람은 영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내면화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에게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불안'은 영적 안녕감 및 신앙과 반대의 개념으로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대개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가정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기에도 버거워하고 회피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부모 및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은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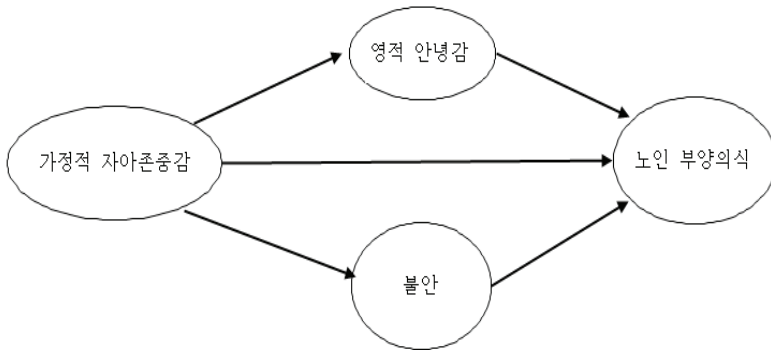
'기독교신앙'은 십계명을 비롯하여 성경 전체에서 '경로' '효'를 바탕으로 인간된 도리를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다. 과연 신앙교육을 받은 기독교대학생은 성경의 가르침이며 사회윤리적 책무인 '경로' '효'를 수행하고자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 발생한다.

오늘날 대학생은 과거에 비해 더 이기적이 되어 자신의 성공에 몰두하며, 과거와 달리 장래와 취업, 진로 등에 대한 막중한 불안감으로 인해 노부모 및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아지고, '경로' '효'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부담으로 인

식하는 것 같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노인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노인 부양의식 사이에 영적 안녕감과 불안이 어떤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연구 모형 및 연구 문제

1. 연구 모형



[그림1] 연구 모형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노인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기독교대학생의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노인 부양의식 간의 관계에서 영적 안녕감과 불안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III. 이론적 배경

1. 기독교대학생의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노인 부양의식 관계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개인, 가족,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사회적 측면에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경로’ ‘효’를 중시하지 않게 되었고, 자식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되었으며 가족과 사회적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을 강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김숙경, 2010: 441). 또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이 증가된 것도 부양의식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만성질환 또는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내에서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될 뿐만 아니라, 수발자의 부재로 인해 비인간화의 현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가정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노인 차별과 학대, 방임 등 사회 갈등으로 비약되고 심화되고 있다(Reimer, 2007: 1-3).

가족주의 가치관 가운데서도 노인 부양의식은 가장 급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장년층보다는 젊은층이, 저학력보다는 고학력층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양옥경, 김혜영, 2001: 29-55). 문제는 가족이 구조적, 기능적 및 심리적으로 결손될 때 그것은 단순히 가족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이다.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유약한 존재로서 젊었을 때와 달리 능력의 저하 및 퇴행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환이 쉽게 발병 된다(Rogers, 1980: 5-16). 이를테면 가정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모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능적인 인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 하여 무시하게 되면 가정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동일하여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노인 부양은 크게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적 부양은 가족, 친지 등이 부양하는 것이고, 공적 부양은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와 국가적 수준의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 부양은 부양의무, 부양태도, 부양책임, 효행의지 및 효행관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노인 부양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후대 가족의 몫으로

서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면에서 1차적으로는 사적 부양의식과 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녀는 노부모 및 노인에 대한 의무, 복지유지, 보호부양과 경제적 지원 등과 같은 성숙된 부양태도를 갖도록 사회적 합의가 강조되어야 한다.

정창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정서적 및 신체적 서비스 부양의식 모두 부모와 친밀도가 높을수록, 가족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공경 및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인식은 신앙생활을 오래할수록, 연령층이 중고등학생일 때보다 중장년층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생이 일상생활에서 노인과의 빈번한 교류와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환경을 경험할 때 노인 부양의식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노인 부양의식은 가족환경과 노인인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대학생은 부모자녀 간, 부모-조부모 간 친밀감이 강할수록 노인 부양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노인의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노인 부양의식도 높게 인식되었다(이위환, 권용신, 2005: 165-78). 정창수(2009: 76-78)의 연구에서 대학생은 확대가족에서 성장할수록, 가정교육이 자유로울수록, 부모와 동거할수록, 부모의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부모자녀 간 친밀감이 높았고, 조부모와의 관계에서는 확대가족일수록 친밀도가 높다고 분석하였다.

경제적 및 정서적 부양의식은 남학생이면서 확대가족일수록 아버지의 건강이 양호하지 않을수록 높았으며, 신체적 서비스 부양의식은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위일수록, 노인과 동거해본 경험이 있을수록 노인 부양태도가 긍정적으로 분석되었다(김수혜 외, 1993: 56-72). 대학생은 그들이 갖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 부양의식이 높고,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 부양의식에 매개효과를 갖는다(최승아 외, 2009: 239-62).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노인 부양의식의 정적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김수혜 외, 1993; 이위환, 권용신, 2005). 이는 현대사회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대변한다. 따라서 대학생이 인식한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노인 부양의식에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성립하여 상호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가족 내부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가족의 기능적 상호작용 정도를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족환경임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노부모 및 노인에 대한 보호, 존경 및 사랑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출애굽기 20장 2-17절과 신명기 5장 6-21절에 기록된 십계명의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신 5:13)”고 기록되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기록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강조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신명기에는 첫 돌판에 4개, 둘째 돌판에 6개의 조문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출애굽기는 두 개의 돌판에 각각 5개의 조문씩 새겨져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제1-5계명과 제6-10계명으로 나누며, 제5계명은 인간에 대한 가르침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 공경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신명기의 십계명에서 제1-4계명은 하나님 공경에 대한 가르침이고, 제5-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며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효도라는 사실이다. 제5계명은 인류 공동체를 질서있고, 건강하게 가꾸어 가기 위한 가르침이라는데 의의를 지닌다. 이렇듯 성경이 강조하는 부모공경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인간이 하나님 공경과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과 인간관계도 잘못할 수 있다. 노인 부양에 대한 성경 전체적인 강조점은 노인 부양, 즉 ‘경로’ ‘효’를 의무로 여기고 그것을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2. 기독교대학생의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영적 안녕감 관계

기독교대학생의 기독교신앙은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Joules, 2007: 1). 서경현 외(2005: 1077-95)의 연구에 의하면, 영적 안녕감은 모든 종류의 생활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었고, 자아존중감과는 정적 상관이 성립하였으며, 우울과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영적 안녕감을 가진 기독교대학생은 스트레스가 적었고, 또 영적 안녕감을 가진 기독교대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영적 안녕감을 높게 갖는 대학생일수록 우울은 낮게 나타난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한 경우, 영적 안녕감의 평가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모태신앙일 경우, 영적 안녕감 하위척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정성덕 외, 2001: 230-42). 더 나아가 영적 안

녕감이 높은 수준일 때 자살의도가 현저하게 저하되고, 우울이 감소된다는 선행연구도 있다(강은실 외, 2004: 190-99). 기독교신앙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안녕과 행복감을 더 인식하였는데, 이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정성덕 외, 2001; 강은실 외, 2004; Lawler-Row, 2010: 1-16; Sandage & Jankowski, 2010: 168-80).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서로에게 영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영적 안녕감을 갖게 하고 문제해결능력이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난다(Olson, 1989: 152; Garland, 1999: 118).

영적 안녕감은 수직적 차원인 종교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고 다시 수평적 차원인 실존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느끼고, 주관적인 삶의 만족감과 실존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및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Ellison, 1983: 330-40).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성경을 내면화하여 그것을 삶의 기준 및 좌표로 삼고 삶의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이 무질서하지 않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특징이 나타난다(Stoll, 1989: 4-21). 영적 안녕감은 심리적 안녕감을 포함하는데 이것이 형성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불안도가 낮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영적 안녕감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심리적으로 하나님과 이격된 삶으로 인하여 신체적 긴장감을 비롯하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더 나아가 우울, 공황, 자살 등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Fremont & Fremont, 1996: 208).

기독교대학생에게 있어서 영적 안녕감은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목적을 역동적으로 추구하게 함으로써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개인 내적 차원이다. 또한 하나님과 자신, 이웃, 환경과 의미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초래하며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엘리슨(Ellison, 1983: 330-40)도 현재의 삶에서 영적으로 건강하면, 삶이 활기차고 목적적이며, 충만한 느낌을 갖는다고 하였다. 영적 안녕감은 내적 가치에 근거하여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며 바른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역할과 주위 상황 간 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자기 헌신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모린 케니와 게일 도널드슨(Maureen E. Kenny & Gail A. Donaldson, 1991: 479-86)은 부모의 갈등 및 지각된 가족불안이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대학생활에 부정적 요인임을 밝혔다. 이는 부모자녀 간 관계의 질에 따라서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Miller, 2004: 1). 즉,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하고 의사소통이 원만한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영적 안녕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불안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생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실존적 존재의미와 신앙생활에 개연성이 있고, 불안에는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기독교대학생의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불안 관계

현대사회에서 대학생은 학업, 취업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적응 문제와 심리적 문제에 봉착하여 불안감이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적 자아정체감과 의미있는 타인의 지지 등은 갈등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다. 인간은 분명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스스로 존중감을 갖고 가정에 헌신할 때 정신건강을 영위할 수 있다(Bergin, 1991: 394-403). 정신건강은 개인의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영적 안녕상태를 전반적으로 통합한 상태이어야 한다(정성덕 외, 2001: 230-42; Lent, 2004: 482-509). 동일 맥락에서 대학생이 가족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긍정적인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고, 이를 근거로 노인 부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독교대학생으로 하여금 신앙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 상태를 갖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자신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노부모, 더 나아가 노인을 잘 부양하고자 하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불안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하면서 분리-개별화가 적절하게 형성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불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데,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안정 및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드러내는 것이다(Bernardon, Babb, Hakim-Larson & Gragg, 2011, 40-51).

불안증상의 원인으로는 예기치 않았던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또는 심리적 충격이 만

성화되는 데에서 올 때도 있고, 부모와의 갈등, 성문제에 관한 죄의식 같은 내면적 갈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 불안은 개인의 인격형성과 발달, 인간관계에 장애적 요인으로 개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불안과 갈등 상황은 성격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동기, 집착, 자기신념 등에서 발생하며 행동적 측면에서는 자기 자신과 불일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Lauer, 1973, 171-174). 또한 불안상황은 건강하지 못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진실된 대인관계를 맺기 어렵게 한다. 유병기(2010: 33-43)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이 증가할 때마다 불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불안과의 상관분석의 결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불안수준이 낮아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옥(2009: 55-56)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불안은 자아존중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불안수준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의 소인이 높은 사람은 쉽게 위협받으며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불안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기독교대학생의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노인 부양의식에서 영적 안녕감과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기독교대학생과 10개 교회에 출석하는 대학생 500명을 임의표집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방식은 연구자가 사전에 설문대상 대학 및 교회를 방문하여 관계자의 협조를 얻은 후, 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 기입방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지의 회수는 응답 완성 후 연구자가 현장에서 수거하였고,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으며, 회수된 450부의 검사지 가운데 결측치가 있는 18부를 제외하고 총 43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검사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적 자아존중감 척도

가정적 자아존중감 척도는 브루스 하레(Bruce R. Hare, 2000: 550-52)가 제작한 자아존중감 척도(Hare Self-esteem Scale: H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또래, 학교, 가정의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또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척도는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10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역산문항은 2, 4, 8, 10번으로 이르는 역채점하였다. 신뢰도는 하레(2000: 550-52)의 연구에서 .74로 나타났다. 가정적 자아존중감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본다.

2) 노인 부양의식 척도

노인 부양의식 척도는 제이콥 터크만과 어빙 로지(Jacob Tuckman & Irving Lorge, 1953: 249-60)가 개발한 것으로서 이영길(2006: 43)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은 Likert 5점 척도로 하게 되어 있고, 점수는 최소 30점에서 최고 1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 부양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영길(2006: 43-44)의 연구에서 경제적 부양의식도 .89, 정서적 부양의식도 .89, 신체적 서비스 부양의식도 .92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test-retest)를 통해 얻은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3) 영적 안녕감 척도

영적 안녕감 척도는 레이몬드 팔라우치언과 크레이그 엘리슨(Raymond F. Paloutzian & Craig W. Ellison, 1991: 56-70)이 개발한 영적 안녕감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를 정성덕(2001: 230-42) 등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 척도는 영적 안녕 상태를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녕감을 갖는 종교적 영적

안녕감(1, 3, 5, 7, 9, 11, 13, 15, 17, 19번)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 영적 안녕감(2, 4, 6, 8, 10, 12, 14, 16, 18, 20번)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측정하는 척도이다(정성덕 외, 2001: 230-42). 각 하위변인은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응은 Likert 5점 척도로 하게 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역산문항은 1, 2, 5, 6, 9, 12, 13, 16번으로 역채점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정성덕 외(2001: 230-42)의 연구에서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2주간격의 검사-재검사를 통해 얻은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4) 불안 척도

불안 척도는 찰스 스피버그와 리차드 고서치 및 로버트 러슨(Charles D. Spielberg, Richard L. Gorsuch & Robert Lushene, 1970: 53)가 개발한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 69-75)이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상태-특성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이며, 역산문항은 1, 6, 7, 10, 13, 16, 19번으로 역채점하였다. 신뢰도는 스피버그와 고서치 및 루센(1970)의 연구에서 .86으로 나타났고, 김정택, 신동균의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를 통해 얻은 신뢰도는 .9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9와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측정변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모형에 대한 검증을 위해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노인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영적 안녕감과 불안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각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1) 변인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모형의 검증을 위한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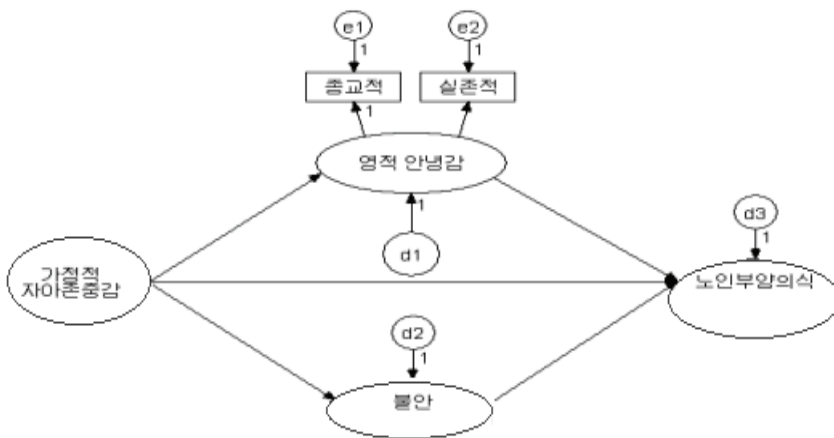
과 같다. 노인 부양의식에는 가정적 자이존중감, 영적 안녕감, 불안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적 안녕감($r=.348, p<.001$)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적 자이존중감과 불안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독교 대학생의 가정적 자이존중감이 높을수록 노인 부양의식이 높아지며, 대학생의 가정적 자이존중감이 높을수록 불안도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표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구분	가정적 자이존중감	노인 부양의식	영적 안녕감		불안
			종교적	실존적	
가정적 자이존중감	1				
노인 부양의식	.322***	1			
영적 안녕감	.254***	.348***	1		
	.326***	.331***	.718***	1	
불안	-.146**	.323***	.145**	.072	1
M	4.07	114.48	4.05	3.78	2.62
SD	0.57	16.62	0.77	0.53	0.58

** $p<.01$, *** $p<.001$

2) 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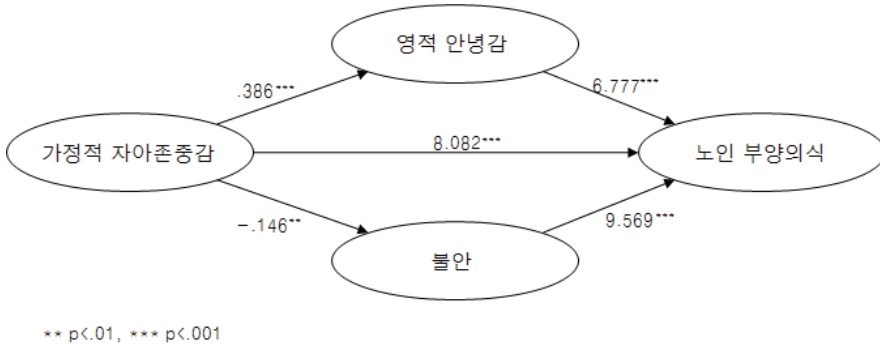
[그림2] 최종 구조방정식 모형

측정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fit index)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적합도 판단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절대 적합도 지수인 χ^2 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증분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χ^2 은 표본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가 과도하게 추정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만으로 판단하였으며, 모형적합도의 판단기준은 CFI>.90, TLI>.90이면 타당한 적합도라 할 수 있고, RMSEA<.06이면 타당한 적합도이나 RMSEA<.08이어도 비교적 높은 적합도라 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chi^2 / [df] / p$	TLI	CFI	RMSEA
수용기준	$p > 0.05$	0.9 이상	0.9 이상	0.08 이하
최종 모형	6.957 / [2] .031	.953	.991	.076

위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모형의 χ^2 는 6.957(2, N=432)이고 TLI(.953), CFI(.991)가 모두 타당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MSEA도 .076로서 비교적 높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연구 모형은 적합한 모델이며,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이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 모형의 표준화 경로 계수와 유의도 수준을 알아본 연구 모형의 경로도는 [그림3]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경로계수는 $p < .01$ 수준 이상에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생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노인 부양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082).



[그림3] 연구 모형의 경로도

4. 매개효과 검증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노인 부양의식 관계에 영적 안녕감과 불안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3> 매개효과 분석

내생변수	외생변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영적 안녕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0.386	0.386	0.000
불안		-0.146	-0.146	0.000
노인 부양의식		9.300	8.082	1.218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해 보면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영적 안녕감(.386, p<.001)과 불안(-.146, p<.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노인 부양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8.082, p<.001),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18, p<.001). 따라서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노인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안녕감과 불안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노인 부양의식의 관계에서 영적 안녕감과 불안이 미치는 매개효과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기독교대학생 432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부양의식에는 가정적 자아존중감, 영적 안녕감, 불안 모두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적 안녕감($r=.348, p<.001$)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불안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적 안녕감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신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기독교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하여 불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는데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갖도록 하고, 긍정적이며 존중하는 태도로 양육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안녕감을 갖는 학생이 자신의 불안감도 적고 노부모 및 노인을 존중하고 부양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노인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안녕감과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영적 안녕감(.386, $p<.001$)과 불안(-.146, $p<.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노인 부양의식에 직접적 영향(8.082, $p<.001$)과 간접적 영향(1.218, $p<.001$)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노인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안녕감과 불안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견고히 했을 때 이는 노인 부양의식을 높일 수 있는 변인이 되며, 영적 안녕감과 불안은 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측정모형이 표본자료에 적합하여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노인 부양의식이 연관성을 갖고 영적 안녕감과 불안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은 가족관계 안정성과 자녀의 불안 간 개연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Bernardon, Babb, Hakim-Larson & Gragg, 2011, 40-51).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4개 대학과 10개 교회의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독교대학생 전체의 경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고, 비기독교대학생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영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용적 가치를 갖는다. 신앙의 성장이란 영적 안녕감의 기초 위에서 이룩되기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적 안녕감을 갖도록 하거나 그것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노부모 및 노인 부양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상담, 청소년상담 및 가족상담 분야에서 가정적 자아존중감, 노인 부양의식, 영적 안녕감 및 불안 등의 구조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가정, 교회 및 기독교상담 기관에서 노인 부양과 관련된 교육과 상담에 있어서 분명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셋째, 청소년상담 및 가족상담 관련 분야에서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와 영적 발달에 대한 담론을 확장하여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노인 부양의식에 대한 접근을 통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탐색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교회는 기독교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에게 성경과 신앙을 통하여 노인부양의식, 경로, 효 등을 가르쳐서 이를 내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교육은 가정에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교육하여 경로와 효에 대한 신앙을 내면화하여 효행의지를 갖도록 강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노부모 및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한국교회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효과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은실·송양숙·조향숙·강성년 (2004). “청소년의 자살의도, 우울, 영적 안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3(2). 190-99.
- 김수혜·김병성·박형중 (1993). “부산시내 일부 대학생들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0(2). 56-72.
- 김숙경 (2010). “대학생의 노인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30(2). 439-51.
- 김정택·신동균 (1978).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 의학』, 21(11). 69-75.
-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경현·정성진·구지현 (2005). “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생활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77-95.
- 양옥경·김해영 (2001). “가족의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방향.” 『가족과 문화』, 13(2). 29-55.
- 이위환·권용신 (2005). “가족 친밀감과 노인인식이 노인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4(2). 165-78.
- 이영길 (2006). “농촌청소년들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유병기 (2010).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1(1). 33-43.
- 정성덕·이종범·박형배·김진성·배대석·이광현·사공정규·송창진·배진우 (2001). “한국판 영적 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0(2). 230-42.
- 정창수 (2009).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 Bergin, A. E. (1991). “Values and Religious Issues in Psychotherapy and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6(4). 394-403.
- Bernardon, Stephanie, Babb, Kimberley A., Hakim-Larson, Julie & Gragg, Marcia (2011). “Loneliness, Attachment, and the Perception and use of Social Support in University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43(1). 40-51.
- Ellison, Craig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330-40.
- Fremont, Walter & Fremont, Trudy (1996). *Becoming an Effective Christian Counseling*. Greenville, SC.: Bob Jones University.
- Garland, Diana R. (1999). *Family Ministry*. Downers Grove: IVP.
- Hare, Bruce R. (2000). “The HARE General and Are A specific(School, Peer & Home) Self-esteem Scale.” Corcoran, Kevin & Fischer, Joel.(eds.) (2007).

-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New York: the Free.
- Joules, Shaalon (2007). "The Mediating Role of God Attachment between Religiosity and Spiritual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Young Adults." Ph.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Kenny, Maureen E. & Donaldson, Gail A. (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4). 479-86.
- Lauer, R. H. (1973). "The Readjustment Scale and Anxiety." *Journal of Psychosom. Research*, 17, 171-74.
- Lawler-Row, Kathleen A. (2010). "Forgiveness as a Mediator of the Religiosity -Health Relationship."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2(1). 1-16.
- Lent, Rober W. (2004). "Toward a Unify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on Well-being and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4). 482-509.
- McDonald, L. (1996). "Abuse and Neglect of Elders." in Birren, J. E.(eds.) (2007). *Encyclopedia of Gerontology*, New York: Academic.
- Miller, Phyllis Zajack (2004). "Family Members' Expectations for Involvement with Their First Year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Olson, David H. (1989).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Newbury Park, C.: Sage.
- Paloutzian, Raymond F. & Ellison, Craig W. (1991). "Norms for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9. 56-70.
- Parrott, Les (2000). *Helping the Struggling Adolescent*. Grand Rapids: Zondervan.
- Reimer, Sarah E. (2007). "A Test of a Model of Positive and Negative Death Attitudes among Family Caregivers of the Elderly." Ph.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Rosik, Christopher H. & Smith, Linda L. (2009). "Perceptions of Religiously Based Discrimination among Christian Students in Secular and Christian University Settings."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1(4). 207-17.
- Sandage, Steven J. & Jankowski, Peter J. (2010). "Forgiveness, Spiritual Instability, Mental Health Symptoms and Well-being: Mediator Effects of Differentiation of Self."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2(3). 168-80.
- Soeken, Karen. L. & Carson, Valerie. J. (1987). "Responding to the Spiritual Needs of the Chronically Ill."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n* 22(3). 603-11.
- Spielberg, Charles Donald, Gorsuch, Richard L. & Lushene, Robert.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
- Stoll, R. I. (1989). "The Essence of Spirituality." in V. B. Carson (eds) (1989). *Spiritual Dimension of Nursing Practice*. Philadelphia: Saunders.
- Tuckman, Jacob & Lorge, Irving (1953). "Attitudes toward Old Peopl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249-60.

ABSTRACT

The Effect of the Home Self-esteem on the Attitude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in Christian College & University Students – centering around Spiritual Well-being and Anxiety as Mediators –

Joseph Jeon (Sungkyul University)

The purpos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home self-esteem of Christian college & university students and the attitude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and the effects of the spiritual well-being and anxiety as mediating agents on them. The participants are 432 student of four colleges and univeristy students & of 10 churches.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 19 and AMOS 7.0.

The study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home self-esteem, spiritual well-being and anxiety on the attitude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Especially, the spiritual well-being($r=.348$, $p<.001$) has the highest correlation to the attitudes of supporting the elderly. Also the home self-esteem and anxiety have negative correlations with one another. The higher the self-esteem, the lower the spiritual anxiety level. Second, all the demographic variables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assurance of personal salvation. Most of the participants claimed that they had the assurance of salvation, but some who do not have the assurance of salvation shoed significantly high level of spiritual anxiety. Third, there was significant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and anxiety as mediating agents on the attitudes of supporting the elderly. The result shows that self-esteem affect significantly both on spiritual well-being($.386$, $p<.001$) and anxiety($-.146$, $p<.01$). Also, the self-esteem affected on the attitude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both directly(8.082 , $p<.001$) and indirectly

(1.218, $p < .001$). This result tells us that spiritual well-being and anxiety have significant effect as mediating agents in terms of the effect of self-esteem on the attitude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Fourthly, the researcher ran the multi-group analysis to see if there was any difference in structural shape according to one's personal assurance of salvation. The result shows that those who had the assurance of salvation showed higher correlation between the home self-esteem and the attitude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than those who did not have the assurance of salvation. In most variables, those who had the assurance of salvation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demographical analysis in general.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gives meaningful data for the personal and family counseling for the college students in terms of home self-esteem, attitude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their spiritual well-being and anxiety.

Key Words: College students, Home self-esteem, Spiritual well-being, Anxiety, Mediating effect